



이 천 용
임업연구원 연구관

겨울 태백산 정상 신의 제단을 넘으며

백두대간의 중심인 태백산은 강원도 영월군과 태백시 및 경상북도 봉화군의 경계에 있으며 해발 1,567미터로서 낮지 않으며, 천년 병화(千年兵火)가 들지 않는 영산으로서 토속신앙이 성하였으며 정상과 계곡 등에 사찰과 기도처가 많았던 곳이다.

코발트 색 하늘을 배경으로, 넓고 신이 내리는 태백산을 겨울이 끝날 즈음 동료들과 갔었다. 먼저 매월당 김시습이 태백산을 바라보며 쓴 시를 한번 음미해보자.

서쪽으로 아득하게
태백산을 바라보니,
푸르고 높은 피가
구름 사이로 솟았더라.
사람들은 산 마루에
다른 신령이 있다하더니
하늘과 땅 사이에 조화로
열린 것을 가히 알만하더라.

유일사 쪽 입구에서 1,500원의 입장료를 내고, 임도를 따라 산행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주목

을 시작하였다. 어제 내린 비로 눈이 아닌 얼음이 길을 덮고 있었다. 미리 준비한 아이젠을 신고 얼음을 딱딱 찍으면서 올라가는 일도 쉽지않은 않았다. 넓은 임도가 완만한 경사로 나 있어 여럿이 이야기하며 올라가기에도 충분하였다. 단조롭고 얼음에 싫증나 지름길을 택하여 무릎까지 빠지며 눈을 밟는 기분을 만끽하였다. 유일사까지는 경사가 있어 얼음에 미끄러지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걸었다.

“살아 천 년, 죽어 천 년”이라는 주목 군락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다.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주목은 신비감이나 경외감까지도 주는 듯 하였다. 박희진 시인은 「겨울 태백산행」이란 시에서 주목의 여러가지 형태에 반하여 이를 극찬하는 시를 썼다.

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진 주목,
가지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기울어서.
기묘한 갑골 문자(甲骨文)를
이룬 주목.
벼락을 맞은 듯,
해골만 남은 주목,
속이 텅 비인 주목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의 설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주목은 없구나.)
너무 잘 생겨서,
너무 기막힌 운치(韻致)를
자아내서.
아, 아, 탄성을 지르게 되거나,

태고의 신비 서린 상징과도 같아
입을 딱 벌린 채,
뉘를 잃게 되는 주목도 있다.
신의 조화인가,
백설(白雪)의 마술인가?
한마디로 환상적!
너무도 환상적!
이렇듯 신비와 현실이 하나되어
사람을 탈피(脫魂)의 경지로 몰아
가는 풍광은 두 번째다.
저 백두산 천지 체험에 이어서
말이다.

전 날 비가 온 탓인지 물이 오르려는 가지 끝마다 맺힌 얼음 막대가 햇빛에 반사되어, 보석과 같은 모습은 이 세상이 아닌 자연을 보여주고 있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어, 저절로 고드름 노래가 나온다. 수정과 같은 고드름이 아닌, 가지를 감싸고 있으니 핫도그를 상상해 보아도 좋겠다. 고산에서 볼 수 있는 까마귀가 크게 울어대지만 음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반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면, 날씨가 기분을 좌우하나 보다. 정상에 이르기 전, 동산 숲보다 더 부드러운 곡선의 활엽수 난쟁이 숲이 나온다. 자작나무, 거제수나무, 사스레나무 등 자작나무과의 잣빛 옷을 입은 나무들이 주목과 함께 숲이 나온다. 잣나무는 5개의 잎이 얼음으로 하나로 되었는데 깜박 다른 수종으로 오인할 뻔 했다. ‘무슨 잎이 열대수종처럼 저렇게 두꺼운가?’ 하고 자세히 보니, 얼음 막

대 속에 푸른 잣나무 잎들이 모여 있었다. 키 작은 신갈나무 집단이 고산평지를 아늑하게 채운다. 눈밭에 무슨 먹이가 있는지 연신 고개를 흔드는 새가 시선을 끈다. ‘동고비새’라고 누가 알려주어 깨달음의 기쁨이 얼굴에 넘친다. 오랜 세월을 지나기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다고 주목 위로 올라가 훼손이 심한지, 멋드러진 주목이 울타리 속에 갇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인다. 길 양쪽으로 꺾질같이 남아 있고 가운데는 길이 되어버린 주목 수문장. 일일이 번호를 매겨 보호하겠다는 산림청 직원의 노고가 눈에 보이는 듯하다.

얼음요정이 가지 끝마다 앉아 있고, 그들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듯한 겨울 끝, 숲의 풍광은 눈꽃이 핀 주목과 신갈나무를 안고 있다. 말이 필요없다. 그저 보고 느끼며 숲으로 간다.

1,567미터의 장군봉에 있는 작은 제단을 지나 편평한 능선을 따라가니 천제단이 나온다. 녹니편마암으로 쌓은 사각형 기단 위에 둘레 27미터, 폭 8미터, 높이 3미터의 원형제단은 남쪽으로 출입구가 나 있고 중앙에는 ‘한배검’이라고 써 있는 비석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제를 올리고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왕이 친히 천제를 올린 곳”이라는 기록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산꼭대기에는 태백산사가 있는데



◀ 천제단 남쪽 출입구

세간에서 천왕당(天王堂)이라 한다. 이 산결 고을 사람들이 봄, 가을에 제사를 하는데 신좌앞에 소를 매어 두고는 갑자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난다. 만약 돌아보면 '불공(不恭)한 일이라 하여 신이 알면 벌을 내린다'고 한다. 사흘이 지난 후, 부(府)에서 그 소를 거두어 이용하는데 퇴우(退牛)라 한다."고 적혀 있다. 오늘날 이러한 습속은 전혀 남아있지 않지만 태백산 당골에 있는 단군성 전에는 해마다 개천절에 단군제를 올린다.

정오가 지나자 드디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눈이 녹아 질푽한 땅은 지금까지의 눈발과는 달리 삭막하기까지 하였다. 개천절에는 천제를 지내며 강원도민 체육대회 때에는 성화채화지로 사용되

는 '천제단' 그 주변은 어느 덧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넓은 광장 한쪽에 태백산이란 비석이 서 있는데 태백산 비문에는 '태백(太白)은 한밭이니 대광명이라, 태백산은 한반도의 요추인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중추에 우뚝 솟아 반도 이남의 산맥을 거느리고, 강하(江河)를 발원하니 우리 국토의 뿌리다. 태백의 검룡수(儉龍水)는 한강의 근원으로 반도 중서(中西)와 수도 서울의 젖줄을 이루고, 천황(天潢(黃池))은 낙동강의 원천으로 반도 남부의 생명수를 이룬다. 영동의 물줄기 오십천(五十川)도 이 산에서 비롯되니, 태백은 이 민족의 요람이며, 생명력의 원천이다."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 큰 산 태백산이 물의 근원지임을 밝히고 있다.

사방을 둘러보니, 거대한 산덩어리에는 방위에 따라 눈의 존재가 뚜렷하게 보였다. 망경사를 지나 반재로 가는 능선을 택하여 하산하였다. 남쪽사면이라 빙수같이 되버린 눈과 얼음 때문에 미끄럼틀이 따로 없는 것 같았다. 이제 불편한 아이젠을 벗어 버리고 미끄럼을 타 보았다. 단종 비각을 거쳐 경사가 심한 길을 다 내려오면 망경사가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있으나 역사가 깊은 지역에 있으니, 멋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엉성한 건축물은 일행의 발걸음을 잡지 못했다. 그 후의 길은 아주 완만하여 당골로 내려서기 전에 모두 모여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붉은 빛이 감도는 거제수나무 껍질을 일행이 가져와서 토론을 벌인다. 여러 겹으로 된

이것을 신기한 듯이 쳐다본 후 일행 중 이호신 화백이 그 껍질에 그림을 그리려고 들들 말아 주머니에 넣는다. 숲에서만 볼 수 있는 정취이다. 당골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 겹은 녹아 짙고 속은 얼은 탓에 필자는 보기 좋게 미끄러져 속옷까지 젖는 잊지 못할 추억 거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중턱 이하의 계곡 옆으로 난 길은 그늘이 지고 아직 봄기운이 들지 않아 여전히 얼어 있었다. 썰매 대신에 미리 준비한 비닐로 미끄럼 타는 일행은 어느덧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겨울을 즐기었다. 길을 재촉하면서도 적막감이 감도는 계곡에서 얼음길로 흐르는 생명의 숨소리를 듣는다. 계곡을 지르는 나무다리에 잔설이 얹혀있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넘어지는 회원을 좋아라하고 보는 마음들이 오히려 넉넉하다. 길가에 늘어선 거제수는 깊고 높은 산에서만 볼 수 있는 나무인데 길가에서도 볼 수 있으니, 어찌 행운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아는 이에게만 통하는 말이지만.

산 아래 당골 광장에는 눈으로 만든 여러 모형이 따뜻한 날씨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각종 공연과 연주 등 문화 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올해 안에 완공하고, 2005년까지는 태백시에 카지노, 스키장, 골프장, 협궤열차 등 대규모 관광 위락시설을 조성한다는데 우선 숲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속사료 제4호인 돌장승

태백의 정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광장으로 가는 길, 왼쪽에는 강원도 민속사료 제4호인 '돌장승'이 소대 2개와 당목 4그루가 함께 있고, 길 오른쪽에도 같은 모양의 돌장승이 있다.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눈 길과 얼음 길과 진창이 교대로 나타난 하산길이 끝나는 듯 했으나 도립공원 입구 청원사의 용담이 불거리를 남기어 주었다.

용담은 태백산 봉우리에서 땅속 물길을 통해 내려온 물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낙동강의 발원지이며, 날이 가물어도 마르지 않으며, 여름에는 얼음같이 차고, 겨울에는 따스한 물이 솟아난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또한 "효성이 지극한 삼형제를 둔 홀어머니가 병이 들어 하반신에 용비늘이 돋으면서 용의 모습으로 변했다. 어

머니는 병이 깊어가자 아이들을 불러 놓고 태백산 중턱에 한 높이 있으니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아들들이 고민하는 중 난데없이 용마 한 필이 나타나 어머니를 태우고 높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뇌성벽력과 폭풍우가 일면서 오색무지개가 솟아 올라 어머니를 눈 속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이 늙을 '용담'이라고 불렀으며, 어머니가 용(龍)으로 되어 살면서 가끔씩 물을 휘저어 흐리게 한다."라는 용담의 내력도 태백산다운 전설이다.

아무튼, 예쁜 하늘, 얼음이 덮인 길, 천 년의 주목, 얼음이 맺힌 가지, 이제 물이 오르려는 나무, 높은 산에서나 볼 수 있는 자작나무류 등 모두가 자연의 구성원으로 최대역량을 펴는 정경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영원히 남을 것이다.